



What's Up, OITA !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인회,유학생 OB,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께 오이타의 "지금"을 전해드립니다.



**오이타 X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교류 페어**

2026년 7월 25일에 토요타 카롤라 오이타 축제 광장에서 오이타현 주최

「오이타 X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교류 페어」

가 개최되었습니다.

캐나다 동부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를 배경으로 한 소설 [빨강머리 앤]과 구스정 출신의 아동문학가 구루시마 타케히코와의 연결을 인연으로 시작된 교류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양국의 국가 제창과 함께 PEI주의 총리 및 주일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의 영상 메시지, 캐나다 관련 퀴즈 등으로 분위기가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빨강머리 앤과 PEI의 매력



메인 이벤트인 스페셜 토크 세션에서는 [빨강머리 앤]의 번역가 무라오카 하나코의 손녀이자 작가인 무라오카 에리 씨를 비롯해, 사토 오이타현 지사, 그리고 [빨강머리 앤]에 정통한 [유후인 타마노유] 대표 이사 구와노 이즈미 씨가 참석해 [빨강머리 앤]과 PEI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듣는 동안, 아직 방문해 본 적 없는 PEI의 아름다운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한 자연의 축복이 가득한 PEI에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



<왼쪽부터: 구와노 씨, 무라오카 씨, 사토 지사>



어린 시절에 읽었던 [빨강머리 앤]을 어른이 되어 다시 떠올려보니,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주제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고아 앤의 성장" 뿐만 아니라 "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 사람들의 성장"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이야기는 현재 오이타현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탁지원제도의 시행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PEI를 경험하다!



이벤트 장소에는 로프 키링 만들기과 아이스하키 등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음식 부스에서 홍합과 푸틴 등의 해쉬 포테이토, 메이플 버거 등 캐나다 음식을 맛보며 마치 현지에 온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PEI와의 우호관계 의향서 체결식에 참여했던 만큼, 이번 교류 페어를 통해서 PEI의 문화와 매력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었던 인상적인 하루였습니다!

취재: 영국 국제교류원 로사 부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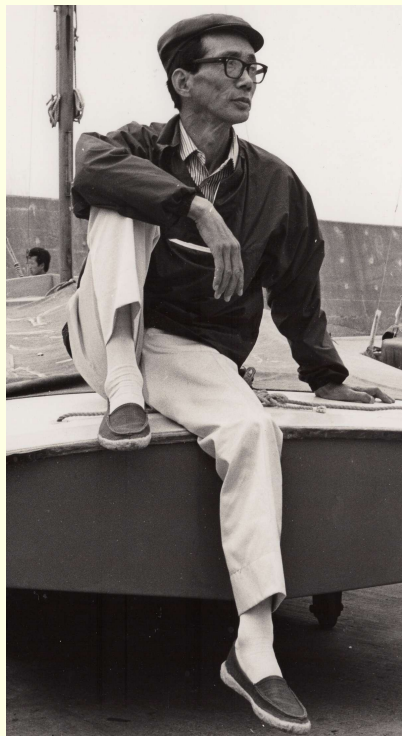


News from Taketa City

다케타시 소식



다케타시
홈페이지



"강아지 경찰 아저씨"나 "아이스크림 노래" 등,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동요를 지은 작사가이자 동요 작가인 사토 요시미. 그는 1905년, 다케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동요의 다정한 세계와는 달리 본인은 상당한 자유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다케타시에는 요시미씨의 업적을 전하는 "사토 요시미 기념관"이 있으며 작품과 자료를 통해서 그의 감성이 가득한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노래해볼까요♪

まいごのまいごの
こねこちゃん♪♪
あなたのおうちは
どこですか♪♪♪



News from Kitsuki City

기쓰키시 소식

기쓰키시 관광 협회
홈페이지



“류큐”가 문화청 100년 푸드로 인정받았습니다!



“류큐”는 지금도 가정에서나 이자카야 등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오이타 대표 향토 음식입니다. 기쓰키시에 오시면 류큐를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에서는 지역에서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식문화를, 100년 동안 지속되는 식문화라는 의미의 “100년 푸드”로 지정해, 문화청과 함께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ews from Usa City

우사시 소식

우사시
홈페이지



햇술 축제 11월 개최

아지무산 포도로 만든 햇술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연례 행사입니다.
풍부한 자연환경이 만든 와인과 지역 제철음식을 즐기면서 아지무만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포도 따기 체험 ~10월 무렵까지

아지무의 풍부한 자연에서 기른 신선하고 달콤한 포도를 직접 수확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체험입니다.
제철 음식을 그 자리에서 즐기면서 가족 또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News from Kunisaki City

구니사키시 소식



くにさきおにむすび
公式キャラクター
オニムスジ
공식 마스크트
오니무스진

시내의 음식점과 카페, 매점 등에서 각 가게가 직접 개발해서 만든 원조 오니무스비 주먹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구니사키시는 해산물과 산채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소량의 다양한 식재료가 많기 때문에 딱 하나의 "명물"을 지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주먹밥으로 만들어버리자! 라는 발상에서 탄생한 것이 "구니사키 오니무스비"입니다.



해산물도!



산채도!

＼ 이번 가을, 구니사키 맛보기! ／

구니사키 오니무스비
스탬프 랠리 개최!!

2026년

10/1(목) ▶ 12/31(목)

오니무스비를 맛보고 돌려보며 멋진 경품까지!



후렌 종유동 우스키시



미국 국제교류원
알리시애나 린



오이타에서 처음 맞이한 여름이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더울 줄 몰랐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장소를 찾던 중, 연중 약 15도로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듣고 후렌 종유동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북이처럼 보이지 않나요?

탐험구는 약 100년 전에 후렌 종유동이 처음 발견된 곳입니다! 지금은 지하수로 가득 차 있어 이곳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면 입구로 들어가면 이 곳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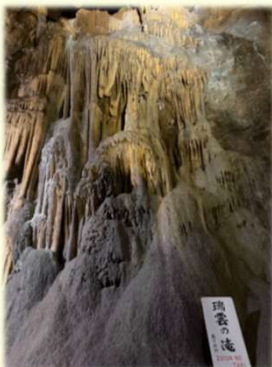
종유동 안에 폭포가!?

종유석 중에는 폭포처럼 보이는 형태도 있습니다.

"즈이운 폭포"는 물이 흘러 떨어지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동굴 내부의 일부에서 물이 흐르거나 물방울이 떨어지기도 해, 실제 폭포같은 풍경과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후로 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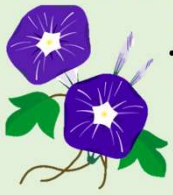
즈이운 폭포



누노비키 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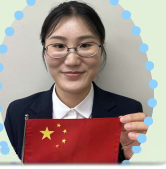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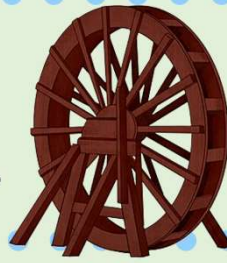


터널을 500미터 정도 걷다 보니, 웅장한 모습의 "용궁성"이라는 종유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종유석은 100년에 약 1cm³ 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종유동이 만들어지기까지 약 100만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는 때때로 작은 이벤트도 열립니다. 내부 온도가 15도였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계속 머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시원한 오이타는 바로 여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분고오노시

하라지리 폭포



중국 국제교류원
랴오 만



달력상으로는 어느새 가을이 왔습니다. 일본에서 맞이한 첫 여름, 일본의 여름이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고유한 풍경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초록빛 논밭과 강에서 즐기는 물놀이, 그리고 귀를 울리던 매미소리.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기도 한, 어딘가 그리운 여름을 찾아 이번에 방문한 곳은 별안간 눈 한 가운데에 등장한 "하라지리 폭포"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웅대한 하라지리 폭포는 약 9만 년 전 아소산의 분화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폭포 아래쪽과 연결된 계단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내려가서 가까이서 폭포의 물보라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폭포 주변에는 수로가 둘러싸고 있으며 강에서부터 끌어온 물이 주변 논에 스며들어 맛있는 오가타 쌀을 키웁니다. 방문했을 때에는 마침 벼가 무럭무럭 자라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폭포의 수량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그 물이 논으로 흘러가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하라지리 폭포만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긴 나무로 된 다리 "타키미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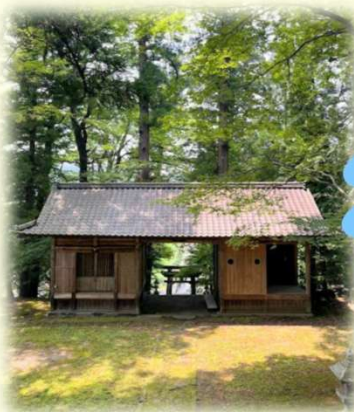
オススメ!

(랴오 만의 추천!)

~하라지리 폭포 원조~

꿀 가보스 아이스크림

돌아가기 전에
미치노에키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리이 끝자락에는 니노미야 신사가 있습니다. 초록빛으로 둘러싸인 경내는 시원하고, 마치 신이 지키고 있는 비경에 있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꼭 한번 여유롭게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히메시마촌

공주마마? 히메시마!

~빠져드는 신비한 매력~

한국국제교류원
안수영



오이타현내 유일한 섬마을 「히메시마촌」으로! 구니사키시 이미항에서 배로 20분 정도. 섬에 발을 디디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불을 간지럽히며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진다. 왕나비가 날아오는 5월과 10월이 섬을 방문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한다.

히메시마 볼거리

① 풍부한 자연환경

오이타현 북부, 세토내해에 떠있는 섬. 푸른 바다와 신록이 아름다운 히메시마는 그야말로 오이타현의 낙원이다. 7개의 화산아 빚어낸 흑요석과 독특한 지질학적 풍경은 좀처럼 보기 드문 귀중한 볼거리다.

마을 곳곳의 주택에서 볼 수 있는 '탄화목' 벽은 방충 및 방수효과가 있다.



흑요석



섬 주택의 탄화목 벽

② 7대 불가사의

히메(공주)시마에는 바위에서 태어난 공주의 전설이 있다. [일본서기]에도 나오는 공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섬 7대 불가사의를 둘러보는 것도 가능하다!



호시미즈



우키스



센닌도

③ 본오도리 · 여우춤 (기쓰네 오도리)



매년 8월에는 히메시마 만의 전통 및 장작 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여우춤을 추는 아이들의 모습이 매우 사랑스럽다.



가마쿠라 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온 국가 지정 '무형 민속 문화재'로서 마을 사람들이 소중히 계승해 오고 있다.

구루마 애비

마을 이곳저곳에 염전을 이용한 사각형의 구루마 애비 (보리새우) 양식장이 보인다. 생산량은 전국에서 10%를 차지한다.



보리새우 요리



바다 소면

히메시마에서는 모즈쿠 해초를 '바다 소면'이라고 부른다. 육지와는 또 다른 섬마을 특유의 용어나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히메시마만의 묘미다.

참, 탱글탱글한 식감과 단맛이 풍부한 이 지역의 명물 보리새우는 회로 먹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히메시마 국가지질공원

섬에 들어오면 관광안내소가 바로 눈에 들어온다. 히메시마 이동수단으로는 에코카 외에도 무료로 이용 가능한 히메시마 순환버스가 있다.



히메시마의 태양광으로 발전 및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코카를 타고 가이드와 함께 섬 일주도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진정한 에코섬이다!

히메시마 에코투어리즘
공식 홈페이지→





From our Reporters

국제교류원 소식



아는 만큼 넓어지는 세계



영국 국제교류원
로사 부텔



얼마 전, 축제에서 한 노점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AI로 만든 포스터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AI는 어떻게 글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까?", "AI에 사진 같은 것을 입력해도 안전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하면서, 모르는 것일수록 더 알아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저 역시 스스로 이해를 더 넓히고 싶어져, 기초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민간 자격증인 "생성형 AI 패스포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와 안전한 활용 방법을 하나씩 배우면서, 일본어로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AI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배우는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오이타 생활, 2년차 진입!



미국 국제교류원
알리시아나 린



오이타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는 대학을 막 졸업한 뒤 혼자 해외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에 큰 불안이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친구는 생길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같은 걱정들 말이지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다정함과 따뜻한 한대 덕분에 그런 불안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친구가 생겼고 잊지 못할 경험도 쌓았으며, 오이타에 와서 다행이라고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쿄와 같은 대도시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오이타에 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2년차에도 오이타현 안에서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더 알찬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From our Reporters

국제교류원 소식



지역 모임에서 느낀 지역의 정



중국 국제교류원
랴오 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람들 간의 유대가 깊고 인정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달 한 번 "이도바타 회의 (우물가 수다)"가 열립니다. 공민관에 모여 함께 먹고 마시며,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 주신 덕분에 저도 모임에 참여하며 지역과의 인연을 맺고 친구도 생겨 오이타에서의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다른 나라 또는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느껴질 때에는 혼자 그 감정을 품고 있기 보다는 지역 모임이나 축제 등 다양한 지역 활동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새로운 만남을 통해 그 지역에서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수영이 역수로 좋다!



한국 국제교류원
안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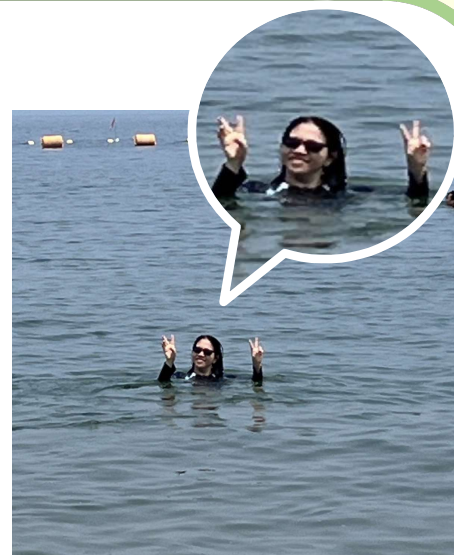
최근,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계속 수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참에, 근처에 수영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수영을 배우지만,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수영 수업을 배울 일이 거의 없어서 제대로 된 자세나 수영 방법은 몰라도, 그저 물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영복을 챙겨서 처음 혼자 수영장에 가서 마치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된 기분으로 헤엄쳤습니다. 시원한 물살이 몸을 감싸며 기분 좋게 모든 스트레스가 씻기는 듯한 느낌으로 한 시간 정도 수영했습니다.

휴일에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친구와 함께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며 물놀이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수영을 배워서 수영 강습도 신청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What's Up, OITA!

가 드리는 공지

국제교류원을 파견합니다!

국제정책과에서는 **국제교류원 (CIR)**을 강사로 파견하여 각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삶의 모습을 함께 즐겁게 배워보실래요?

파견 가능한 국제교류원: 영국, 미국, 중국, 한국

개요

- 대상 오이타현 내 학교 · 지역단체 · 공민관 등
-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상담 가능)
- 내용 국제교류원들의 출신 국가의 문화 · 관광 · 음식 · 놀이 등을 소개!
- 비용 파견비용 무료! (교통비 및 재료비는 의뢰측 부담)

신청방법

- ① 우선은 전화로 상담!
- ② 일정과 내용을 확인 한 후, 한 달 전까지 신청서 제출
- ③ 국제교류원과 메일 등으로 사전 조율
- ④ 당일 방문한 국제 교류원과 즐겁게 배워봅시다!

주의사항

파견일시와 내용 등에 따라,
파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국제교류원의 파견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의 활동을 전 세계에 소개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오이타현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현인회 활동(친목회),
유학생 OB의 근황 등을 보내주세요!
(양식 자유)

[기사제공 / 문의처]

오이타현청 국제정책과 담당: 에구마, 나카야마

[메일] a10140@pref.oita.lg.jp

모집 중

